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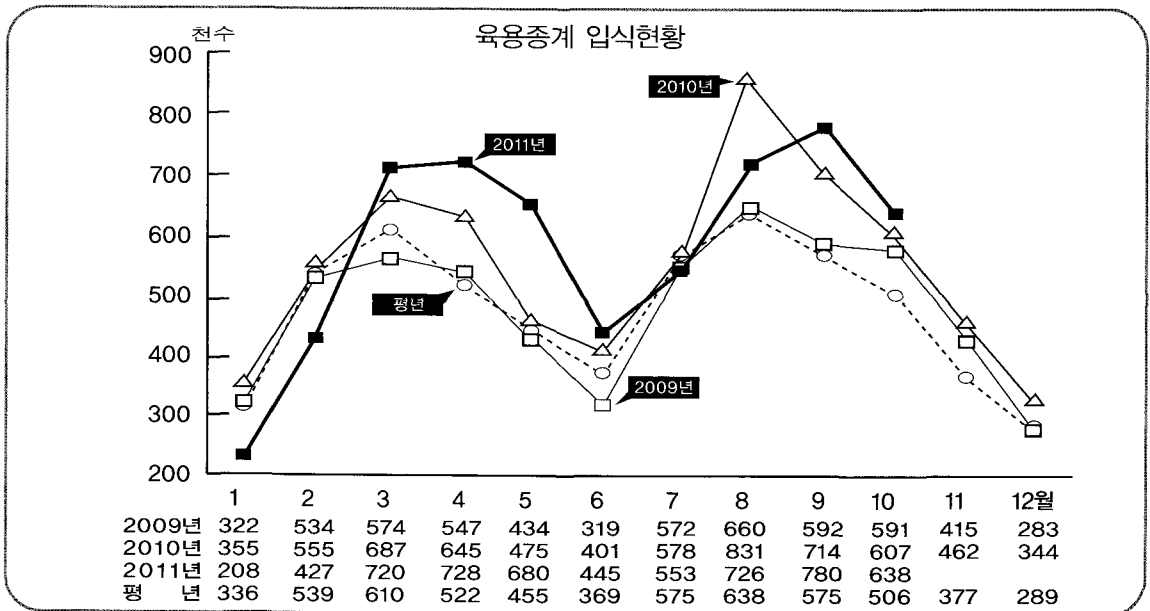


12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10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5.2% 증가

- 지난 10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63만8천4백수로 전년동기(60만6천6백수) 대비 5.2%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50만6천수) 대비 26.2% 증가한 수준이다(9월 78만1백수 대비 18.2% 감소).
- 육용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동기 및 평년수준보다 증가했으나 원종계업체의 입추일정 지연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10월까지의 누계는 전년대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종계계군의 생산성이 떨어져 실제 병아리 생산수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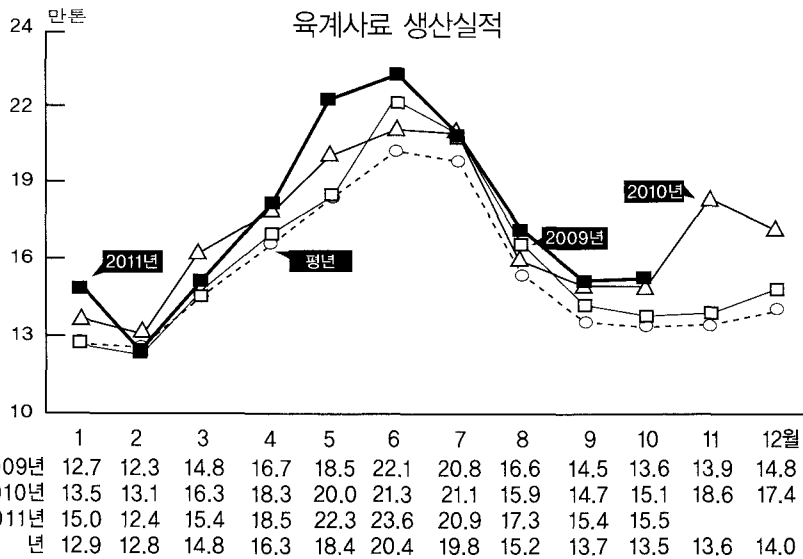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06~2010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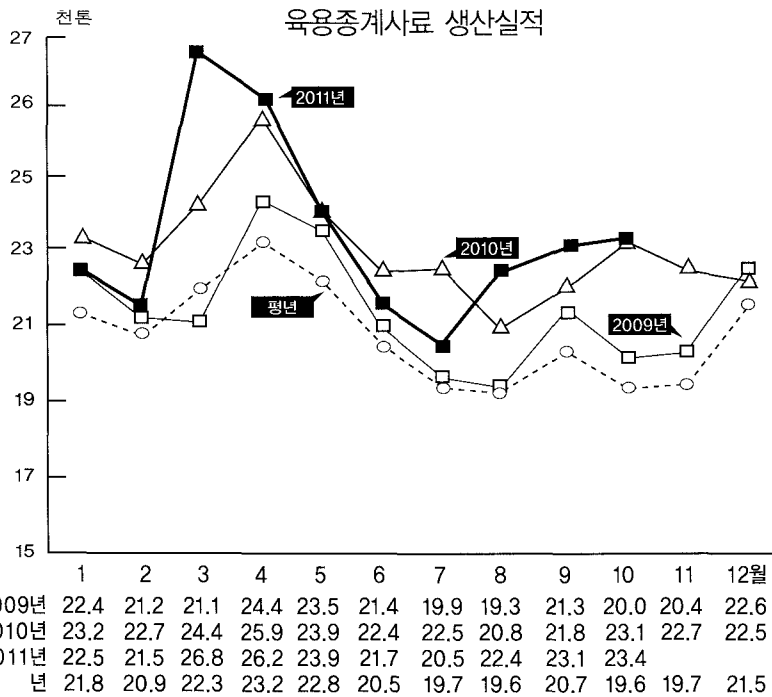
■ 12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12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육용종계 사료 생산량은 23,367톤으로 전년동월(23,077톤) 대비 1.3% 증가했으며, 전월(23,120톤) 대비해서도 1.1%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이 잠재력 예상치 대비 크지 않은 것은 생산성 하락 때문이며 이로 인해 병아리 생산량도 많지 않아 장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 10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155,185톤으로 전년동월(151,397톤) 대비 2.5% 증가했으며, 전월(154,391톤) 대비해서도 0.5% 증가했다. 12월 육계사육 마리수는 생산가담 종계계군의 생산성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겠으나 증가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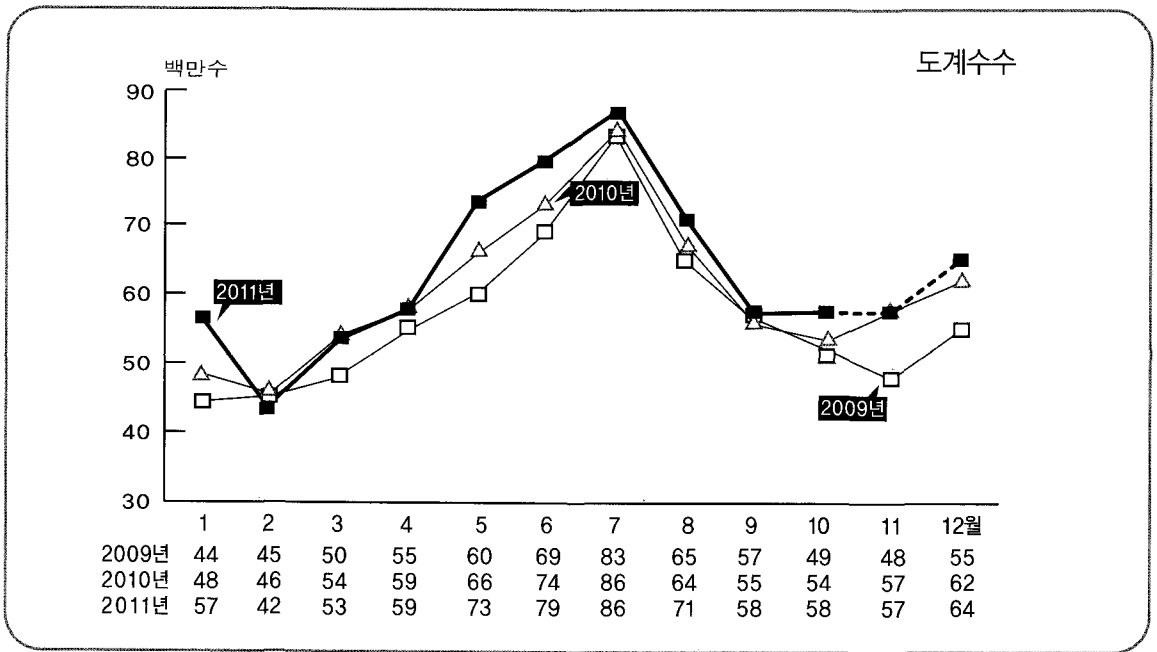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12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지난 10월의 도계수수는 5,777만수로 전년동월(5,429만수) 대비 6.4% 증가했으며, 전월(5,792만수) 대비해서는 0.3% 감소했다.
- 12월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도계수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6,398만수로 전년(6,240만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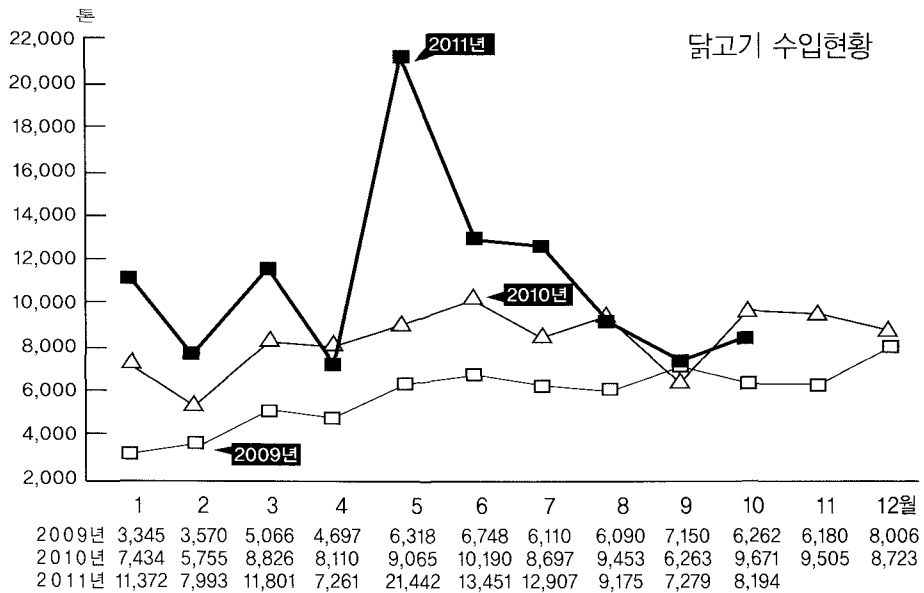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1년 11~12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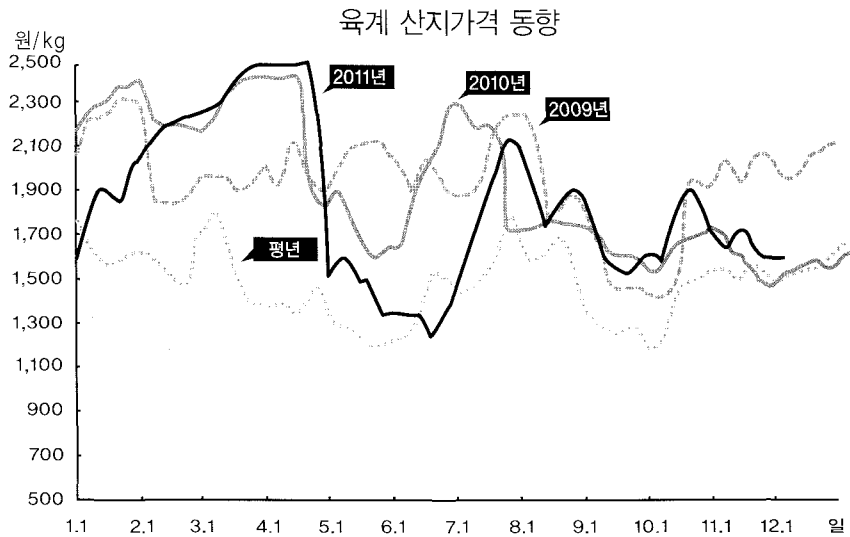
■ 12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10월에는 8,194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9,671톤) 대비 15.3% 감소했으며, 전월(7,279톤) 대비해서는 12.6% 증가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6,394톤으로 전년동월(8,182톤) 대비 21.9% 감소했으며, 전월(4,747톤) 대비해서는 34.7% 증가했다.
- 최근 브라질에서의 닭고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입주문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어 12월에는 수입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12월 닭고기 수급 전망

■ 12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500~1,700원 전망

- 지난 11월초에는 물량감소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중순 이후에는 공급량 증가와 함께 김장철로 인해 소비가 감소해 11월(1~30일)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691원을 나타냈다(전년 11월 1,608원보다 5.2% 상승, 평년가격 1,554원보다는 8.8% 상승, 전월 1,770원 보다 4.5% 하락).
- 12월의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수요가 있고 계절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여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냉동비축물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사육 및 도계마리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포함세를 보이며 전년과 비슷한 1,500~1,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12월 가격은 1,564원, 평년가격은 1,595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10. 10~10. 16	7,778	8,006	102.9%	3,676	4,476	121.8%	1,430	1,370	95.8%	510	2,381	466.9%
10. 17~10. 23	7,940	8,285	104.3%	3,722	4,392	118.0%	1,480	1,350	91.2%	510	2,327	456.3%
10. 24~10. 30	7,957	8,255	99.6%	3,666	4,309	117.5%	1,400	1,390	99.3%	510	2,240	439.2%
10. 31~11. 6	8,088	8,517	103.2%	3,539	4,156	117.4%	1,490	1,350	90.6%	503	2,284	454.1%
11. 7~11. 13	8,214	8,479	99.6%	3,729	4,155	111.4%	1,530	1,420	92.8%	501	2,178	434.7%

7. 결론

-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수요가 증가하는 연중 2번째 성수기로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냉동비축물량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500원~1,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현재 종계의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 생산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갑작스런 기온하락으로 육계생산성도 하락하는 등 날씨에 의해 생산량이 좌우되고 있으며, AI 발생여부도 소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사료가격 인상 - 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	- 크리스마스 및 연말 수요 증가 - 계절적으로 소비 증가 시기
하락요인	- 생산물량 전년대비 증가 - 냉동비축 물량 수준 높음	- AI 발생 여부